# 납치… 망명… 노벨상… 고통없는 지구촌 꿈꿨다

## 신군부 사형 선고때 세계 각국서 구명운동

## 인권·민주·평화 실천한 세계적 정치지도자

### ■ 평화의 신봉자 DJ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의 거목인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 통일을 향한 남다른 신념을 갖고 실천하며 지구촌의 주목을 받은 '세계적' 지도자였다.

정권의 탄압 속에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겪으며 적지않은 기간 국외에서 생활해야 했던 김 전 대통령에게 해외의 낯선 땅은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미래의 영광이 교차하는 땅이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0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식 참석은 그에게 가장 영광스런 순간으로 기억됨과 동시에, 노벨상 수상을 염원해온 우리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선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영예를 누리게 된 데에는 그가 평생 보여온 민주주의에의 헌신과 그 과정에서 쌓아온 세계 정치 지도자와의 교분이 밑거름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오랜 망명 생활 속에서도 조국 민주화의 열망과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픈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부분 타의로 이뤄진 외국생활에서 김 전 대통령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교분을 쌓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향한 신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유신 직후인 1972년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후인 1982년, 정치적 탄압을 피한 두 차례의 망명 기간은 그에게 고된 인고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그에게 민주주의 전파를 희망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교분을 쌓으며 정치적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생사를 오가는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를 지탱해주고 사선에서 구원해준 이들은 이 같은 국제적 인맥이었다. 1973년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납치돼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당시, 또 1981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도, 각국의 외교적 압력, 저명인사들의 구명운동은 국민의 눈과 귀가 가려진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됐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은 1973년 중정 납치 사건과 1981년 내란음모 사건 등 그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마다 항의서한을 보내 그에게 힘이 돼줬다. 최근 공개된 미국 망명 도중 김 전 대통령과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수상이 나눴던 서신은 이들의 교분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내란음모 사건 당시 서한을 통해 국제적 압력을 행사한 대열에는 교황 고(故) 요한 바오로 2세도 동참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등 그와 교분을 나누며 도움을 줬던 국제적 명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미국 망명 시절, 김 전 대통령은 1983년 재미한국 인권문제연구소를 창설하고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을 맡는 등 활발한 반정부 활동을 벌이며 한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거쳐 복권된 뒤 두 차례 대선에 나선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거푸 선거에서 패배하며 정권교체 좌절 책임론에 봉착하는 등 인생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김 전 대통령이 선택한 카드는 '정계은퇴 이후 영국행'이었다. 이번만은 자신의 의지로 해외땅을 밟은 김 전 대통령은 케임브리지대 객원교수로 재직하며 스스로를 추스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2006년 6월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핸드프린팅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1998년 6월10일 김대중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만찬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다정하게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YS "나라의 큰 거목 쓰러졌다"

### ■ 전직 대통령·정치권 애도

○… 전직 대통령들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자 일제히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애도했다.

정계의 영원한 '라이벌'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쉽고도 안타깝다"면서 "나라의 큰 거목이 쓰러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기수 비서실장이 전했다.

최근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쾌유를 빌기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상도동 자택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거운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측근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침통한 표정으로 "14일 문병을 갔었지만,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파란 많은 정치역정을 걸어왔는데, 이제 천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전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기관지 수술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태우 전 대통령은 TV 방송을 통해 서거 소식을 접하고 충격적이고 애통한 표정을 지었다고 노 전 대통령 측이 전했다.

한편, 'DJP 연합'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고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이 시대 위대한 스승 잃어"

○…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을 잃어 비통하고 원통하다"며 애도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은 서슬 퍼런 독재에 굴하지 않았고, 경제 파탄도 거뜬히 극복했으며, 민족이 한 동포임을 알게 해줬다"면서 "아직 당신을 보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국민들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석달 사이 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잃었다며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 등 외부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상주'된 자격에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며 김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해 온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잃었다"며 몸을 낮췄다. 각 당협에도 김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근조' 플래카드를 게시토록 하고 당원들의 조문도 독려하는 등 역풍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나라당은 "김 전 대통령이 일생동안 민주화와 인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숭고한 뜻이 국민 화합과 남북 평화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하셨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유훈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많은 업적들은 후대의 역사가 평가하고 기억할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서거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동서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 등 다른 정당도 일제히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